정밀제어용 감속기社 찾은 文, "생태계 체질개선 계기"

文 대통령 부품소재기업 현장 방문

日 경제규제 이후 첫 현장행보
관련산업 현재 애로사항 청취
부품·소재·장비 경쟁력 제고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김포 에스비비테크를 방문, 감속기 가공 관련 부품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정밀제어용 감속기 전문업체 SBB테크를 방문했다. SBB테크는 1993년 설립된 회사로 로봇 관절에 필요한 베어링 등을 주로 생산한다. 베어링은 일본 정부가 최근 단행한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에 해당되는 품목이기도 하다. 즉 문 대통령의 SBB테크 방문은 일본발 경제보복 사태 후 첫 현장 행보이자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게 여권 중론이다. 실제 정부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대책 중 하나로 국산 부품·소재·장비 분야 집중 육성을 줄곧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SBB테크를 방문해 열처리강(저합금 고장력 강재)을 감속기로 만드는 형상가공-조립-성능품질검사 공정을 차례로 둘러봤다. 이어 임직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SBB테크의 기술개발 노력'을 격려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기술력으로 무장한 강소기업'에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당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저희가 일본발 수출규제 발표 및 화이트리스트 배제되고 하면서 계속 말씀드린 게 '산업생태계의 체질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했다"며 "(문 대통령의 이번 SBB테크 방문은) 자체생산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우는 데 정부가 지원하고, 또 함께 힘을 모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SBB테크는) 부품·소재·장비 산업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차원의 기업이고, 그곳을 가서 대통령은 현재 상황 돌아가는 것들을 점검하고, 무엇보다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그런 자리"라고도 했다. 일본발 경제보복 사태를 통해 대일수입의존도를 줄이고, 국내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발판으로 만들겠다는 게 현 정부 구상인 셈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일본발 수출규제 조치 발표 후 '국내 로봇제조기업 성능 및 신뢰성 평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번 추가경정예산과 수요기업 연계 등을 통해 조기에 대규모 양산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SBB테크는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하던 로봇용 하모닉 감속기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하지만 SBB테크는 기술개발 후 실증테스트를 완료하지 못해 소규모 시제품만 판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하모닉감속기 선두기업인 HDS(일본 기업)가 연 매출 5000억원으로 세계시장 73%를 점유할 때 SBB테크는 0.27%만을 차지했다.

달리 말해, 문 대통령의 SBB테크 방문은 정부가 일본발 경제보복에 맞서 대기업 중심으로만 대책을 세운 게 아니라, 중소기업 육성에도 커다란 지원을 아끼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日 여행 취소시 국내관광 보상"… 업계 '애국 마케팅'

호텔·리조트 등 프로모션 봇물
'日 보이콧' 국내 여행으로 유도
지자체도 캠페인 등 움직임 활발
광복절 전후로 마케팅 확산될 듯

'프라이드 오브 코리아' 프로모션/하이원 리조트

한·일 경제 갈등이 심화되면서 '일본여행 보이콧' 열기가 확산되고 있다. 반면 방일 한국 관광객도 급감하면서 지방 소도시 등 관광업계가 타격을 입기 시작했다.

수 년간 인기 여행지 상위권을 점유하던 일본이 주춤하면서 국내 여행 활성화를 도모하는 움직임이 유통·관광 등 업계 전반에서 일고 있다. 해외 여행 취소 티켓을 보상해주거나, 국내 여행 관련 프로모션을 내놓는 등 '애국 관광 마케팅'에 불이 붙었다.

◆10명 중 7명 "日 여행 관심 없다"

지난 5일 여행전문 리서치기관 컨슈머인사이트에 따르면 한·일 경제 갈등이 시작된 지난 7월 한국인들의 일본 여행 관심도는 매주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일본 여행에 대한) 관심이 적어졌다'고 답변한 사람은 7월 1주차에만 해도 39% 수준에 그쳤으나, 2주차 52%, 3주차 66%, 4주차 75%로 급상승했다. 실제 지난달부터 방일 한국인 관광객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본격 휴가철인 7월 26~31일 일본으로 향한 국내 여행객은 전년 동기 대비 9.9% 감소했다.

반일 감정이 격화되면서 이커머스 내 일본 여행상품 판매도 급격히 감소했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 11번가에서는 일본 지역 항공권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69%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G마켓의 일본 패키지 상품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57%, 일본 호텔과 에어텔은 각 57%, 62%까지 줄었다.

컨슈머인사이트는 일본 불매운동이 장기화될 경우, 일본 관광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컨슈머인사이트 관계자는 "2017년 이후 중국여행 관심도가 10%대에 머무는 것을 보면 한 번 꺾인 여행 소비자들의 마음을 되돌리기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취소 티켓 보상"

이 기회에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일본 여행 보이콧이 심화되고,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한 만큼 국내 여행으로 내국인들의 눈을 돌리고자 함이다.

강원도 정선군에 위치한 하이원 리조트는 해외여행을 취소한 고객을 대상으로 리조트 내 호텔, 콘도 숙박권을 정상가 대비 75% 이상 할인해주는 '프라이드 오브 코리아'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이 프로모션은 일본 여행 보이콧을 계기로 기획된 것으로, 상품 개수도 광복절을 의미하는 815개로 정해 선착 판매됐다. 항공, 선박 등 취소 증빙을 제시하면 할인이 적용된다.

코오롱 계열 호텔·리조트도 '국내여행 응원 캠페인'을 전개한다. 경주에 위치한 코오롱 호텔과 마우나오션리조트는 오는 31일까지 정상가 대비 최대 6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성수기 특가 패키지'를 선보인다. '경주·부산 명소 알리기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장재혁 코오롱LSI 대표는 "최근 해외여행 대신 국내 휴가지를 찾는 여행객들이 증가하고 있어 국내여행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별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경기관광공사는 지난 5일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한 국내 관광 활성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예스 코리아! 고 경기!'를 주제로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관광공사는 '경기그랜드투어-해설이 있는 여행' 상품 등 도내 주요 관광업계와 협의를 통해 다양한 할인 혜택을 마련한다. 또한, 경기도 숨은 명소를 명소화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 활동에 나선다..

경북 경주시는 해외 여행을 취소한 관광객에게 사적지 입장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대상 사적지는 대릉원, 동궁과 월지, 포석정, 무열왕릉, 김유신장군묘, 오릉 등 6곳이다.

애국 관광 마케팅은 오는 15일 광복절을 전후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서 기자 min0812@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反日 초강경책에 여권내서 '자중론'

민주당 내 "신중해야" 목소리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여권의 비판 수위가 높아지면서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반일 강경 기조도 심화한 가운데 가장 큰 피해는 국민과 기업이 받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고언이다.

7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한국 '백색국가(수출심사 간소국)' 제외 시행령을 관보에 게재한 것과 관련 "우리 국민은 강하다"며 "이번에는 결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일본이 다신 감히 이런 행동을 꿈꿀 수 없도록 안보강국과 경제강국, 함께하는 세계시민이 되도록 더욱 경주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현재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를 과거 일제침략에 빗대 '항일운동'으로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6일에는 당 회의장에 안중근 의사 손도장과 '독립'이라는 글을 게시한 걸개막을 내걸었다. 이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번 사태를 '한일 경제전쟁'으로 규정하며 "온 국민의 총의는 '다시는 지지말자, 다시 한 번 이겨내자'로 고양되고 있다" 고 반일감정을 북돋았다.

다만 당 지도부 기조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최근 메트로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당장 피해받을 대상은 민간이기 때문에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

日 갈등에 관광업 위축 우려… 달래기 나선 與

이해찬 "국내관광 활성화 지원"

한일 갈등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관광업계의 산업 위축 우려가 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7일 "관광이 하나의 선도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관광산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 높고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중요한 분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해외로 관광을 많이 나가기도 하지만, 국내 관광을 더욱 활발하게 일으켜야 한다"며 "장점을 살려 외국인도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나라 관광 인프라(시설)가 약한 것은 사실"이라며 "먹거리 분야에서 세계화가 덜 돼 있고, 가격이 들쑥날쑥해서 소비자에게 친절하지 않은 부분은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회의에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 윤영호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회장, 오창희 한국여행업협회 회장 등도 참석했다. 업계는 이 자리에서 일본 여행객 감소로 입을 타격에 대해 우려했다.

현재 한일 갈등 심화로 국내에서는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과 함께 사회 여러 분야에서 반일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행 항공 노선의 경우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실적이 부진해졌다는 업계 중론이 이어지고 있고, 최근 관광 명소 중 하나인 서울 중구 명동 거리 등에는 '노 재팬(No Japan)'이라는 반일 현수막이 걸려 구청이 철거 작업에 나서기도 했다.

/석대성 기자